

도서관으로 떠나는 북캉스



글 김희선 · 사진 조보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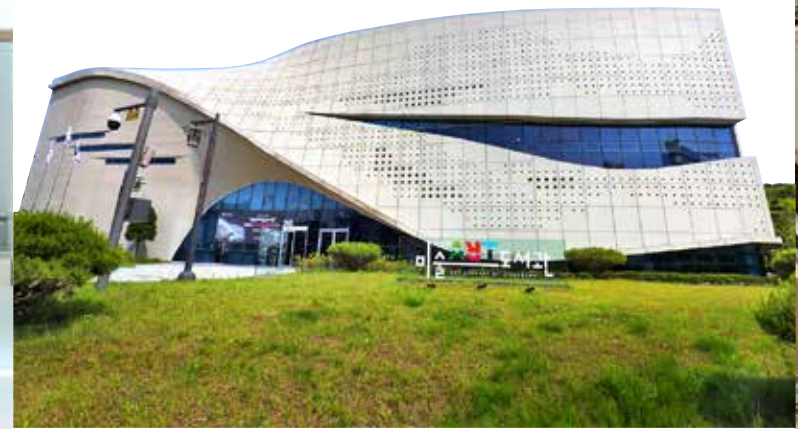
요즘 도서관은 조용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독특한 공간에서 책 읽는 것 이상의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이색 도서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무더운 여름 인파로 붐비는 관광지 대신
쾌적한 도서관에서 색다른 피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미술관을 품은 도서관 의정부미술도서관

1층부터 3층까지 뿔 뚫린 공간을 연결하는 나선형 계단, 키 낮은 책장에 등성등성 꽂힌 책들, 서가 바로 옆에 놓인 감각적인 디자인의 의자와 테이블. 의정부미술도서관은 국내 최초의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답게 공간 설계와 디자인부터 남다르다. 미술과 책이 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도서관, 공간에 가치를 담다

2019년 11월 개관한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의정부 끝자락, 하늘능선 근린공원 안에 있다. 도서관 정문으로 들어서니 1층부터 3층까지 뿔 뚫린 내부가 한눈에 들어온다. 중앙의 나선형 계단을 통해 1~3층이 하나로 연결된 독특한 구조다. 칸막이 없이 개방된 내부 공간은 바깥으로도 열려 있다. 전면 유리창으로 마감된 벽면 너머로 녹음이 우거진 공원 풍경이 가득 들어온다. 원형 계단 끝 둥근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은 도서관 내부를 한층 밝고 환하게 해준다.

계단을 따라 3층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1층 중앙의 원형 테이블과 의자, 책장이 만들어낸 곡선이 인상적이다. 마치 책을 펼쳐 놓은 듯한 모습이다. 반투명 아크릴판을 이용해 만든 책장들은 키가 작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책도 공간을 두고 여유 있게 꽂아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했다. 둥성둥성 놓인 책장 사이 사이에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열람실을 따로 만들지 않고 서가에서 뽑아 든 책을 바로 옆에 앉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사서 어성욱 씨는 “공간의 변화가 도서관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의정부미술도서관 내부



1



2

1층 아트 그라운드 입구에 있는 '호크니 빅북'은 전 세계 9천부 제작된 한정판으로 판매가가 500만원에 육박한다.
2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소규모 강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3 중앙의 나선형 계단이 1층부터 3층까지를 연결한다.

문화를 바꾸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모토를 갖고, 연결과 융합, 개방과 소통의 개념을 기획부터 설계까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나로 연결된 1~3층은 각기 다른 콘셉트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아트 그라운드'는 미술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건축, 패션, 공예, 회화, 디자인 등 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분야 책과 자료들로 서가가 채워져 있다. 도서관이 보유한 장서 4만3천여권 가운데 이런 예술 분야 서적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아트 그라운드 입구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책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들을 모은 '호크니 빅북'(DAVID HOCKNEY : A Bigger Book)이다. 전 세계에 단 9천부 제작된 한정판 에디션으로 판매가가 50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처럼 쉽게 구하기 힘든 고가의 해외 원서와 국내의 주요 미술관 도록이 1층 서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 도록도 물론 볼 수 있다. 의정부 시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이런 희귀 자료와 도서를 최대 10권까지 무료로 대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관내 주민으로 회원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정책이다.



3



1 2층 제너럴 그라운드'의 어린이책 큐레이션 코너 2, 3 어린이책 서가. 낮은 책장에 책을 등성등성 꽂아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2층 '제너럴 그라운드'는 예술 이외 분야의 책들로 채워진 공간이다. 어린이를 위한 서가와 성인을 위한 서가를 한 공간에 담아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4만여권이 넘는 수많은 책 가운데 어떤 것을 골라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큐레이션' 코너로 가보자. 매월 주제를 정해 도서관이 추천하는 책들을 따로 뽑아냈다. 지난 6월에는 '죽음'을 주제로 '죽음을 그린 화가들, 순간 속 영원을 담다'(박인조 지음), '죽음과 부활, 그림으로 읽기'(유성혜 지음),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로라 프리젯 지음) 같은 책들이 추천 목록에 올라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매월 선정된 주제와 연계한 강좌도 열린다.

'사서가 사서 읽은 책'이라는 코너도 눈길을 끈다. 이 역시 '결정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코너다. 도서관 사서들이 매월 직접 사서 읽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추천해 준다. 이 코너에서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라는 책을 골라 들었다. "웨스 앤더슨(미국 영화감독) 스타일로 촬영된 세계 여러 곳의 사진을 보며 눈이 즐거운



1

1 3층의 기증존은 미국 호놀룰루 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장 등 국내외 미술계에서 기증한 도서들로 채워져 있다. 미술 애호가로 알려진 BTS 리더 RM(김남준)이 기증한 책도 있다. 2 1층 미술 전시장에 걸린 정윤지 작가의 작품 3 공간을 채운 가구와 조명 디자인도 남다르다.

여행을 떠나보자”는 추천 문구가 마음을 끌었다. 2년 가까이 꼭꼭 눌러왔던 해외여행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책이다.

3층 카페에서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사 들고 1층으로 내려와 반쯤 누운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소파에 자리를 잡은 뒤 책을 펼쳤다. 알래스카의 글레이셔만 국립공원부터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호수, 스위스 벨레데레 호텔, 인도 라자스탄의 아메르 요새에 이르기까지 웨스 앤 더슨 특유의 색깔과 구도를 빼닮은 세계 곳곳의 사진들로 눈 호강을 하며 언제일지 모르는 다음 해외여행 후보지를 추려본다. 에곤 실레의 그림을 모아놓은 포스터 북처럼 가볍게 볼 수 있는 책들을 몇 권 더 골라 훑어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책 읽기가 지루해질 때쯤이면 1층 아트 그라운드 옆에 마련된 미술 전시관으로 가보자. 도서관이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거친 ‘시민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주기적으로 교체된다. 지난 6월에는 ‘도서관 속 작업실’이라는 주제의 전시가 열렸다. 도서관 3층에 마련된 ‘오픈 스튜디오’에 입주했던

작가들의 작품 80여점을 모아 보여주는 전시다. ‘오픈 스튜디오’는 의정부미술도서관이 운영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6개월 단위로 개인전 이력이 없는 작가 2명을 선발해 작업 공간과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큐레이터 지망생을 위한 ‘청년문화 아카데미’도 운영된다. 대학 재학생 혹은 갓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큐레이터와 함께 미술관 전시 기획부터 진행까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 Information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운영시간 화~금 10:00~21:00
토~일 10:00~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3



음악과 책의 융합
의정부음악도서관

02





1 1층과 2층에는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도서 5천여권이 있다.
2 도서관이 보유한 음원이나 유튜브 음원을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는 기기가 2층 곳곳에 비치되어 있다.

국내 최초의 공공 미술도서관을 설립해 주목받은 의정부시는 지난 6월 또 하나의 특화 도서관을 열었다. 경전철 발곡역 인근 발곡근린공원 내에 들어선 의정부음악도서관이다. 이름 그대로 책과 음악이 융합된 공간이다. 의정부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재즈, 블루스, 힙합 등 '블랙 뮤직'에 특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도서관 1층과 2층에는 5천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음악도서관답게 팝, 재즈, 힙합, 오페라, 뮤지컬, 클래식, 국악 등 음악 관련 도서와 자료가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룹 '퀸'과 관련된 도서와 사진집 등을 모아 놓은 공간, 재즈와 관련된 국내의 잡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 등이 눈길을 끈다. 음악 전공자나 입문자를 위해 다양한 악기의 악보 2천여점도 비치했다. 책과 마찬가지로 악보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다. 3층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CD는 물론,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LP와 고화질 DVD까지 약 1만점의 음반을



2



1 3층에서는 CD는 물론,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LP와 고화질 DVD까지 약 1만점의 음반을 직접 들을 수 있다.
 2 연습실에는 사일런트 기능을 갖춘 피아노가 있다. 3 드비알레의 7채널 스피커를 갖춘 오디오룸



>> Information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80
 운영시간 화~금 10:00~21:00
 토~일 10:00~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갖추고 있다. 곳곳에 턴테이블과 CD플레이어가 비치되어 있어 마음에 드는 음반을 골라 들을 수 있고,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해 대출할 수도 있다. 오디오룸은 프랑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드비알레의 7채널 스피커를 갖춘 공간이다. 도서관에서 선곡한 음악을 헤드폰 없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방음 시설을 갖춘 공간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연습실과 ‘큐베이스 프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곡·편집을 할 수 있는 작곡·편집실까지 있다. 모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다. 1층에 마련된 오픈 스테이지와 3층의 뮤직홀에서는 수시로 크고 작은 공연이 열린다. 지상 3층, 연면적 1천691㎡의 그리 크지 않은 도서관이지만, 음악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종일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

최상의 독서 경험을 누리는 공간 소전서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공개한 '2019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친 한국 성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7.5권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해 1.9권 감소한 수치다.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 하루 이용료가 5만원인 유료 도서관이 등장했다. 지난해 2월 청담동에 문을 연 문학도서관 '소전서림'이다.

03





흰 벽돌로 둘러싸인 책의 숲

영동대교 남단 청담자이아파트 바로 옆에는 흰 벽돌로 된 독특한 외관의 건물이 있다. 정육면체를 여러 개 이어 붙인 듯한 이 건물은 스위스 건축가 다비데 마쿨로가 2016년 설계한 것이다. WAP 문화재단이 갤러리 'WAP 아트스페이스'를 운영했던 이 공간이 리노베이션을 거쳐 문학 도서관으로 변신했다. 소전서림(素田書林), '흰 벽돌로 둘러싸인 책의 숲'이라는 뜻이다.

공공 도서관과 달리 유료로 운영되는 이곳은 '집 밖의 내 서재'를 지향한다. '세심하게 디자인된 공간에서, 특별하게 설계된 의자에 앉아, 전문가들이 엄선한 책을 읽으며, 책 읽는 경험의 최고치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취향이 비슷한 문화 애호가들이 모여 담소와 토론을 나눌 수 있는 '문화 살롱'이기도 하다.

청담동 금싸라기 땅에 자리한 만큼 입장료는 만만치 않다. 하루 이용권은 5만원, 반일(5시간) 이용권은 3만원이다. 연회비(66만원)를 내면 입장료가 반값으로 할인된다. 정기적으로 미술 전시회를 열면서 하루 입장료를 받는 도쿄 롯본기 분키즈 서점이나 도쿄 모리타위의 멤버십 도서관 '아카데미 힐스'처럼 해외에는 유료로 운영되는 사립 도서관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델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1 소전서림의 메인홀. 소전서림과 콜렉티브 디자인 그룹 'ar3'가 협업해 만든 거위 모양의 '구스체어'가 눈길을 끈다.
- 2 소전서림 입구
- 3 그네처럼 생긴 스윙체어가 있는 테라스

책의 숲을 거닐다

1층의 카페 겸 바 '투바이투2x2'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면 도서관 메인홀이 나온다. 지하에 있지만, 높은 층고와 하얀빛이 쏟아지는 한지 질감의 벽면 덕분에 전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곳에는 문학을 중심으로 철학과 인문학 서적이 비치되어 있다. 열린책들의 김영준 편집이사, 안나푸르나 출판사의 김영훈 대표, 철학아카데미의 박정하 이사, 비평가 박혜진, 시인 서효인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의 자문을 거쳐 선정된 책들이다. 주요 작품은 번역별로 여러 권의 판본을 갖추고 있다. 이미 절판되어 전문 북 컬렉터의 도움을 받아 구입한 것도 많다고 한다.

문학도서관을 표방하는 만큼 도서관이 보유한 장서 2만5천권 중 문학 도서가 70%를 차지한다. 독특한 것은 제목 순으로 책을 정리해 놓은 일반적인 도서관과 달리 작가 이름순으로 분류해 뒀다는 점이다. 이용객 입장에서 훨씬 더 찾기 수월한 분류 방식인 듯하다. 신간·추천 도서와 세계 각국의 잡지를 따로 모아둔 서가도 눈길을 끈다. 문학부터 예술, 라이프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잡지 최신호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도서관에 상주하는 북도슨트에게 문의해 보자. 자신에게 딱 맞는 책을 추천해 준다.



1



2

1 메인홀에는 문학을 중심으로 철학과 인문학 서적이 비치되어 있다.
2 1층의 카페 겸 바. 이곳에서 와인 한 잔을 사 들고 도서관으로 내려가 책을 읽어도 된다.
3 서가부터 복도, 화장실까지 곳곳에 예술작품이 걸려 있다.



3



1



2



4

- 1 독립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인 서가'
- 2 'ar3'와 협업을 통해 만든 다이스 체어. 주사위처럼 생긴 좌판이 움직이며 바른 자세로 앉도록 해준다.
- 3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기 위해 걸어든 표식물. 소전서림이 국내 작가에게 의뢰해 만든 예술작품이다.
- 4 테라스에 놓인 '스윙 체어'에 앉아 머리를 식히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다.



3

궁극의 독서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

벽면을 둘러싼 책들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가구들이다. 핀 울, 칼한센앤선, 아르텍, 카시나, 프리츠한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의자들로 공간이 채워져 있다. “최상의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서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인 ‘앉기’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의자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정지는 팀장은 설명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시집 한 권을 꺼내 들고 커다란 대리석 테이블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정육면체 모양의 좌판이 움직이며 바른 자세로 앉도록 해주는 독특한 의자다.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좌판이 앞으로 혹은 뒤로 기울어져 다시 정자세를 취하게 된다. 여기에 앉아 책을 읽으면 깜박 졸음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다이스 체어’로 불리는 이 의자는 소전서림이 콜렉티브 디자인 그룹 ‘ar3’와 협업을 통해 만든 의자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모양의 ‘구스 체어’와 야외 테라스에 놓인 ‘스윙 체어’ 역시 ‘ar3’의 작품이다. 스윙 체어는 그네처럼 탈 수 있는 의자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게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책을 읽다 테라스로 나와 스윙 체어에 앉아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다. ‘리딩 체어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이 세 가지 의자는 소전서림에만 있는 특별한 의자들이니 이곳을 방문한다면 한 번쯤 앉아보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싶다면 ‘인 서가’로 가면 된다. 칸막이로 나뉜 공간 안에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다. 다리를 뻗고 거의 누운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카시나의 LC4 체어가 특히 마음에 든다. ‘인 서가’에는 문학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DVD로 볼 수 있는 상영석도 마련되어 있다.

엄선된 장서·가구와 함께 각각의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미술 작품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판화 ‘오 이디푸스와 스핑크스’, 팀 아이텔의 ‘독서하는 화가’, 리엄 길릭의 수식 시트 작업 ‘Process Friction Canopy Mirrored’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곳곳에 걸려 있다. 심지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기 위해 걸어든 화장실 앞의 표식물조차 예술작품이다. 도서관 내 미술품은 모두 WAP재단의 소장품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된다. 도서관에 걸린 미술품들이 궁금하다면 토요일 열리는 아트투어에 참여해 보자. 전문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담소와 토론이 오가는 문화살롱

메인홀 옆에는 음악이 낮게 흐르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 예술 서적만을 모아 따로 구성해 놓은 '예담'이다. 영국의 테이트 모던과 내셔널 갤러리, 프랑스龐피두 센터 등 해외 유명 미술관의 최신 전시 도록을 모아놓은 '아트 나우' 코너가 눈길을 끈다. 도록들을 찬찬히 훑어보며 해외 미술관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곳에서는 한쪽에 비치된 커피와 차를 즐기며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좀 더 편하게 휴식을 취하며 책을 '들고' 싶다면 중앙에 놓인 안마 의자에 앉아보자. 핸드폰 블루투스를 켜고 의자 옆에 놓인 책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오디오북을 재생시키면 안마의자에 설치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나지막한 오디오북 사운드가 흘러나온다. '예담'은 소규모 공연이나 낭독회, 강연 등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WAP재단이 문학과 인문학을 후원하는 재단인 만큼 작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북클럽'과 인문학 강좌인 '소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수시로 열린다. 현재 서평가 이현우 씨가 진행하는 '로자의 한국문학'(매달 첫째 주 금요일)과 박상진 교수가 진행하는 '단테의 철학, 문학, 예술'(매주 화요일)이 소전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열리고 있다. 정기적으로 북클럽을 진행하는 정대진, 김유담, 박서련 작가는 소전서림이 지원하는 작가들이다. 소전서림은 매년 3명의 젊은 작가를 선정, 이곳에 상주하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박솔뫼·정지돈·천선란 등 세 작가가 도서관을 소재로 쓴 단편을 모아 '흰소설전'이라는 소설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은 소전서림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책이다. 일반 서점에서는 유통되지 않고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메인홀부터 1인 서가, 예담, 장르 소설을 모아놓은 '캣워크', 소규모 모임을 위한 '하오재'까지 공간을 하나하나 둘러보니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입장료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용자들이 더욱 쾌적한 독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 입장객은 40명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❶

>> Information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23
운영시간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일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휴관일 월요일
입장료 반일권(5시간) 3만원, 종일권 5만원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입장료가 50% 할인된다.
북클럽과 인문학 강좌, 아트 투어 등의 프로그램은 네이버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문의 02-542-0804

예술서적을 모아 둔 예담에서는 소규모 공연이나 강좌가 열리기도 한다.

톡톡 튀는 이색 도서관...이런 곳은 어때요



금산그림책지구별마을 제공

0세부터 100세까지 즐기는 그림책 세상 금산그림책지구별마을

충남 금산군 대둔산 자락에 있는 금산그림책지구별마을은 '그림책'을 테마로 도서관과 서점, 갤러리, 레스토랑, 숙박시설, 대안학교 등을 갖춘 그림책 마을이다. '0세부터 100세까지, 3대가 함께 즐기는 그림책 마을'답게 다양한 테마로 도서관을 꾸며냈다. 노란 스쿨버스를 개조해 만든 '그림책 버스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어른들만을 위한 한옥 도서관인 '서유당'도 있다. 도서관 외에도 그림책 원화를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마을을 지은 촌장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음반과 음향기기로 꾸민 음악감상실, 책 한 권 펼쳐 들고 산책하기 좋은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미로 정원 등 매력 넘치는 공간들로 가득하다. 하룻밤 머물며 책을 즐길 수 있는 '북 스테이'와 180년 된 전통 한옥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고택 스테이'도 운영된다.

주소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이용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북스테이 이용 시 오후 8시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
입장료 성인 5천원, 아동·청소년 3천원
북스테이 요금 주중 8만원, 주말 10만원
고택스테이 요금 주중 15만원, 주말 17만원
☎ 041-753-6577



광교푸른숲도서관 푸른숲책들 제공

코로나 시대 '언택트' 도서관 광교푸른숲도서관 푸른숲책들

팬데믹 시대 여러 사람이 모이는 도서관 열람실이 부담스럽다면 수원 광교호수공원에 자리 잡은 광교푸른숲도서관으로 가보자. 숲속에서 사색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채 형태의 독서 공간인 '푸른숲책들'이 운영된다. 나무로 지어진 독채는 원룸 구조로, 한 채당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3시간에 1만원. 새소리가 들리는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휴양림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소규모 독서 모임을 하기에 좋다.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 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광교푸른숲도서관 푸른숲책들 제공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131
이용시간 (푸른숲책들) 1회 오전 9~12시, 2회 오후 2~5시
휴관일 매주 금요일 및 공휴일
사용료 1만원
☎ 031-228-3537

130여종 악기를 보고 체험하다 오산 소리울도서관

다양한 악기를 체험해 보고 빌릴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악기 전문 도서관이다. 2만여권의 장서와 180여종, 1천여대의 악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시 체험관에서 130여종의 악기를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며, 이 중 40여종의 악기는 빌릴 수도 있다. 대여료는 악기에 따라 한 달 기준 1천~1만원으로 저렴하다. 악기 전시 체험관 외에 공연장과 악기 연습실, 녹음 및 편집이 가능한 멀티연습실 등도 갖추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도서관 내 공연장에서 콘서트가 열린다.

주소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102-25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월 첫째 월요일
☎ 031-8036-6670



오산시 소리울도서관 제공

헌책, 독립출판물이 궁금하다면 서울책보고

서울시가 잠실철교 아래 있던 창고를 개조해 2019년 3월 개관한 전국 최초의 공공 헌책방.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지켜온 동아서점, 동신서점 등 29곳의 헌책방이 위탁한 12만권의 책을 보고 구입할 수 있다. 시중 대형 중고서점보다 낮은 10%대의 위탁 수수료만 떼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판매된다. 헌책 뿐 아니라 기존 도서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개인·소규모 출판사의 독립출판물 2천여권과 명사가 기증한 각 분야 전문서적 1만여권도 열람할 수 있다. 물류창고였던 공간을 개조해 독특하게 조성한 서가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책벌레'를 형상화한 구불구불한 긴 통로를 만들고 양옆으로 아치형 서가 32개를 설치했다. 북토크와 공연, 독서 교육 프로그램 등 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열린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
이용시간 평일 오전 11시~오후 8시
주말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8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 02-6951-4979



오산 꿈두레도서관 제공

책과 함께 하는 힐링 캠프 오산 꿈두레도서관

전국 최초로 독서캠핑장을 만든 도서관. 온 가족이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책을 읽고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푸른 나무가 울창한 야외 공간에 캠핑동이 마련돼 있고,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도 있다. 기존에 운영했던 원통 형태의 캠핑동 4개동에 편백으로 지은 오두막 형태의 캠핑동을 추가해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다양한 자연학습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도 있다. 캠핑동은 오산시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오산시민 가운데 5세~중학교 3학년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퇴소 시엔 자녀와 함께 작성한 독서 감상문이나 독서캠핑 소감문을 제출해야 한다. 매월 1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이용 예약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주소 경기도 오산시 세마역로 20
이용시간 (도서관 자료실)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월 셋째 월요일
☎ 031-8036-6520



서울책보고 제공